

## 시끌벅적~ 바로 이 분위기 ‘짱’

###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서울·경기지부 연합법회 현장

청 소년 포교가 열악한 상황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9월 10일 서울·경기지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원들이 봉은사 보우당에서 연합법회를 연 것이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 7개 중립고등학교(동대부속중·고, 동대부속여중·여고, 의정부 광동중·고,

남양주 광동고) 학생 불자 및 각 사찰학생회 학생 불자들 27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삼귀의, 반야심경을 봉독한 뒤 청소년들의 힘든 수험생활을 위로하는 서울지부장 원혜 스님(봉은사 주지)의 법문이 이어졌다. 뒤이어 파라미타 연합법회만의 특별 이벤트, 교리퀴즈 시간이 다들었다.



9월10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파라미타 서울·경기 지부 연합법회가 열렸다. O, X 퀴즈시간에 정답을 맞추기위해 법당안을 오가는 청소년 불자들.

“문제를 잘 들으시고, 10초 안에 O, X를 선택해 주세요. ‘연꽃은 불교의 상징화이다.’ 맞으면 법당 오른쪽, 틀리면 법당 왼쪽에 서십시오.”

사회를 맡은 이수민(동대부여고 2·파라미타 서울지부학생총회장)이 문제를 다 읽기도 전에 “와아~”라는 함성과 함께 270명의 학생들이 법당 왼쪽과 오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우당탕탕, 정신없다. 정작 문제를 맞히는 것보다도, 친구들과 이리저리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게 더 즐거운 눈치다. 답이 빨리 보이는 질문에도 일부러 움직이지 않고 X 쪽에 서 있는 학생들도 몇 보인다.

친구들이 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쪽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깝게 “얼른 이리와~ 이리와~!”라고 소리치지만 소용없다. “왜 일부러 틀린 답 쪽에

### 7개 중립학교 270명 한자리 OX 퀴즈 풀며 불교지식 쌓고 장기자랑하며 한마음 장 펼쳐

서 있었어요?”라고 질문하자 첫 번째 정답을 맞춘 참가자 이보희(광동고 1학년)의 대답은 “여기저기 둘러다니기 싫어서..다.”

시간이 지날수록 퀴즈 생존자가 줄어들었다.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학생들 중에는 동대부여중 1학년생인 정혜수, 이보미, 이연진 양도 있었다. 언니, 오빠들이 모두 탈락하는 상황에서도 꾀꼬리처럼 정답을 맞춰가는 실력이 예상치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퀴즈대회가 있다고 해서, 검색사이트에서 불교관련 지식을 훑어보는 등의 특별공부를 하고 왔다”고 말했다. 모두 같은 반 친구라는 세 아이들은 손을 꼭 잡은 채 “다같이 1등 하자!”라고 외쳤다. 그러나 상황은 왕중왕을 가리기 위한 퀴즈 2회전이 시작되면서 급변했다. 여태까지 O, X로 진행되던

것과는 달리, 이번부터는 사지선다형 질문 중 하나를 골라야한다. 게다가 가장 먼저 손을 든 사람에게만 답변의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살아남은 10명 중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뒤쪽에 앉은 탈락자들에게 기회가 넘어간다. 탈락자에게는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탈락자가 속출할수록 뒤에 가서 앉는 관중들은 늘어나고, 분위기도 진지해져갔다. 소속학교 출신 학생이 한 문제를 맞힐 때마다 뒤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광동고고 잘해라!” “동대부중! 동대부중 파이팅!” “지지마라, 동대부여고!”

“다음 중 통도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통도사는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2. 통도사에는 탑이 없다. 3. 통도사는 선덕여왕 때 창건했다. 4. 통도사에는 대웅전이 있다.” 생각보다 어려운 난이도의 질문에,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자 뒤에 구경하던 탈락자 사이에서 여기저기 손이 올라왔다. “저요!” “여기요!” “3번이요!” 엉뚱한 대답을 하며 즐거워하는 관중도 있다. 그 중에서 광동고 교복을 입고 손을 꼭 잡고 있던 두 문제를 맞히고 뛰어났다. 이날 패자부활전을 통해 올라온 유일한 생존자였다.

치열한 접전 끝에 ‘부처님 십대제자 중 반야심경에 나오는 인물’을 묻는 마지막 질문에 ‘사리자’라고 답변한 이준형(동대부중 2교인 1등)을 차지했다. 이 군은 “모를 때는 뒤에 친구들이 알려주기도 했다”며 “사실은 친구들이 더 잘 하는데 한마음으로 나를 응원해주었다. 내가 아니라 동대부중 불교학생회가 상을 탄 것”이라고 대답했다.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 이후 승승장구하며 2등에 오른 장미현(광동고 2교인)은 “중립학교에 들어서서 불교학생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알게 모르게 주위들은 상식이 많구나”라고 속سر러워했다.

퀴즈대회로 후끈 달아오른 열기는 ‘가장 이쁜 여학생’ ‘가장 잘생긴 남학생’이 나와서 장기자랑을 펼치는 장기 콘테스트, 비트박스 공연, 춤 대결 등으로 이어지며 더욱 고조됐다.

교복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감작적인 ‘봄아저씨’ 춤을 춰 타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뜨거운 박수를 받은 이수민(동대부여중 광동고 1교인)은 “이렇게 타학교에서 활동하는 파라미타 학생들을 만나고 혼자서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더욱 좋다”며 “그냥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 회원 수가 많은 불교학생회에 들어왔는데, 어느새 불교 자체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연합법회는 책을 통해 불교지식을 습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반과 서로 어울리고 몸으로 불교를 체험하는 자리였다. 이날 약 3시간 여 동안 즐겁게 어울렸던 학생 불자들은 수능이 끝난 뒤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졌다.

글=이은비 기자 · 사진=고영매 기자



서울지부장 원혜 스님(봉은사 주지)의 법문 시간. ‘파라미타 학생회에 들어왔으니 선업의 씨앗을 심었구나 마땅가지지오. 이제 열심히 정진하세요.’



순간의 반심으로 탈락한 학생들은 법당 뒤에 앉아 있다가 패자부활의 기회가 오면 앞다투어 손을 들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들. 이날 영광의 1등은 동대부중 2학년에 재학중인 이준형(사진 가운데)이 차지했다.

### ■파라미타 서울·경기지부 연합법회는...

#### 서울·경기 청소년 포교 구심점 역할 서로 영향 주고 받는 정보 교류의 장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 서울지부가 한 학기에 두 번씩 여는 연합법회는 불자 청소년의 ‘만남의 광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서울·경기지역 청소년 포교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수 대비 청소년 불자 숫자가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연합법회는 학교 울타리를 떠난 곳에서 이뤄지는 또래 포교의 가장 큰 무대다.

동대부여중 권진영 교범사교범사단 사무총장은 “연합법회가 각 중립학교간의 교류색깔을 공유하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각 학교 불교학생회는 저마다의 전통과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타 학교에 알려지면서 서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또 중립 중학교를 졸업해 타 국공립 고등학교에 진학한 파라미타 학생회 출신 청소년 불자들이 계속해서 법회에 참가하고 또래 불자들을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이번에도 일선여성상과 대원여고, 이대부속 디지털고 등에 재학 중인 중립중학교 출신 학생 20여 명이 후배를 만나기 위해 법회에 참석했다.

10월 23일에는 ‘제1회 서울·경기지부 연합체 육대회’도 열린다. 중립학교 간 단체 대항전, 품물놀이, 합동경기 등을 통해 또 한 번 불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는 계획이다.

권 교범사는 “파라미타는 현재 전국적으로 26개의 지부, 지회가 개설돼있다”며 “이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각 지부의 연합법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불경, 금책, 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천수경 12매·반야심경 8매

복상불호소영  
장량신장가  
의식사용용도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래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악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C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썩음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이른 곳이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정속의 노폐물 배출, 허벅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허약한 회복력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허벅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정자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아랫배가 냉한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원적외선 “침” 썩음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음을 관경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운 온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 손, 어깨, 무릎, 통풍 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시세요.

문의전화 : 덕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